

## 다중언어주의 기반 한국어 말하기 평가의 담론

지현숙 배재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 이 논문은 제38회 한국화법학회 전국학술대회(2019.4.6)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I. 머리말
- II. 다중언어주의와 언어 평가·한국어 말하기 평가
- III. 다중언어주의와 한국어 말하기 평가의 제목
- IV. 맺음말

## I. 머리말

대부분의 고비중 시험(high-stakes testing)에는 ‘가치 판단’과 ‘정치적 속성’이 개입하고 있는 듯하다. 특별히, 언어 시험의 경우라면 시험 설계자의 가치 판단을 기반으로 언어 능력을 정의하여 ‘구인’을 결정하고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평가할 것인가를 정한다. 이때 시험 개발자가 해야 하는 각종의 가치 판단 가운데 중핵이 되는 것은 ‘구인(construct)’이라 할 수 있다. 구인이 정해져야 ‘과업(task)’이나 ‘시험입력물(prompt)’ 등이 온전하게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시험의 정치적 속성을 살피기 위해서는 한국의 근대사 가운데 한 사건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1923년 관동대지진과 대형 화재가 일어났을 때 조선인을 가려내 학살하기 위해 특정 음가로 변별할 수 있는 단어 ‘쭈르(鶴)’를 발음하게 했던 사례는 시험의 정치적 속성이 얼마나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구약의 길르앗 민족이 에브라임 민족을 가려내기 위해 ‘쉬볼레’를 발음하게 한 사례의 연장선상에 있다. 오늘날에도 쉬볼레 시험의 성격이 이민자, 난민, 또는 시민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언어시험에 나타나고 있다.(McNamara &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2018년 말을 기준으로 하면 약 237만 명으로 전체 인구 5,187 만 명의 약 4.6%를 차지한다.(통계청, 2018) 일반적으로 외국인 거주자가 전체 인구의 5%를 넘을 때 다문화 사회로 볼 수 있는데(이신동·김진호·이상희·이경숙·차재경·이영, 2017: 17), 내년인 2020년이면 5%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므로 한국은 인구통계학적으로도 명실상부한 다문화 사회가 된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언어 경관을<sup>1)</sup> 새로운 안목으로 읽어내고 이끌어갈 수 있는 이데올로기 혹은 언어 정책들을 필요로 한다. 즉, 현재의 한국은 교육, 결혼, 노동, 여가, 종교 등의 이유로 유학생, 결혼이주여성·귀화자, 노동자, 여행자, 성직자 등 다양한 언어 사용자의 이동과 접촉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지금, 한반도’의 언어 경관에 관한 생태학적 묘사, 한국 사회에 속해 있는 구성원의 다양성 존중, 언어 사용자의 창의성과 개방성, 소수언어 사용자의 권리 보호, 지배언어 구사자의 권력 행사 등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시점에 와있다. 이에 어떠한 새로운 가치 판단과 인식론에 터하여 다양한 언어 사용자의 말하기 능력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인지 재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양한 언어 자원과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현재의 한국은 지배언어인 한국어를 비롯하여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이 뒤섞인 변이형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문화적 풍요와 다기호성, 유동성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한국어교육에서는 한국어 문법과 어휘를 ‘오류 없이’ 쓰고 ‘한국 사람처럼’ 말할 수 있도록 연습시키는 것에 주력해 왔다. 이와 같은 경향성은 평가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아 ‘문법, 어휘, 정확성, 언어적 능력’ 등을 말하기

---

1) 언어 경관은 순환적이다. 경관에 나타난 언어를 보면서 인간은 언어에 대해 의식하게 된다. 언어와 문자의 선택은 ‘언어 경관’에 영향을 미치고 받는 사람의 언어 의식에도 영향을 끼친다. 또한 도시 경관의 경제 원리가 언어 경관에 영향을 끼치고, 국민 의식이나 정체성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의미에서 언어 경관은 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이노우에 후미오, 2015: 101)

시험의 주요 구인으로 채택하여 측정해 왔다.

현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다중언어주의’의 담론을 한국어 말하기 평가에 접목하는 본 연구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한국의 언어 경관을 실증적으로 묘사할 수 있으며, 한국어 학습자의 정체성을 재조명하고, 말하기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를 재구함으로써 시험 과업이나 시험입력물에도 변화를 줄 수 있는 근거 마련에 기여할 것이다. 본고가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중언어주의와 말하기 평가를 접목할 수 있는 논의들로는 무엇이 있는가?

둘째, 시험 구인과 과제, 시험입력물을 중심으로 한 한국어 말하기 평가의 현황은 어떠한가?

셋째, 다중언어주의의 주요 관점을 적용하면 한국어 말하기 평가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 II. 다중언어주의와 언어 평가·한국어 말하기 평가

### 1. 다중언어주의와 언어 능력 평가의 접목

‘다중언어주의’는 후기 세계화시대에 출현하고 있는 각종 언어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론을 말한다. 다중언어주의는 언어 사용자가 구어 및 문어를 비롯하여 몸짓, 부호, 이미지 등 다양한 언어들을 사용해서 의사소통하고 있는 ‘현상’을 나타내는 용어이면서 여러 문화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정책의 방향’을 의미하는 용어이기도 하다. 따라서 다중언어주의는 소수민족과 이민자들을 효율적으로 사회에 융화시키고 평등과 자유, 관용을 추구하며 정주민들이 다양한 언어문화를 체험함으로써

써 삶의 질과 지적 사고력을 고양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러한 ‘다중언어주의(plurilingualism)’는 일정 수의 언어에 대한 지식이나 일정한 사회 내에 있는 상이한 언어들의 공존을 의미하는 ‘다언어주의(multilingualism)’와 구별된다.(유럽평의회, 2006: 5) ‘다언어주의(multilingualism)’는 현실 세계에 여러 언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인정하는 인식이자 복수의 언어 사용을 허용하기 위한 언어 정책을 의미한다. 다언어주의(multilingualism)와 다중언어주의(plurilingualism)의 구분을 위해 문화 정책의 유형과 언어 정책의 유형을 시대 흐름에 따라 정리한 표를 인용한다.

〈표 1〉 문화 정책 유형과 언어 정책 유형, 안미란(2010: 156)

문화 정책 유형	언어 정책 유형
동화주의(Assimilationism)	단일언어주의(Monolingualism)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다언어주의(Multilingualism)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	다중언어주의(Plurilingualism)

이렇게 개념을 정의하면, 다중언어주의에서의 이상적 화자는 다양한 ‘언어 레퍼토리’를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한 자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sup>2)</sup> 다중언어주의에 입각한 접근법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다원적인 언어 레퍼토리가기 때문이다.(안미란, 2010: 165)

지금의 한국의 언어 경관을 둘러보면 모국어가 서로 다른 화자 끼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다양한 언어 레퍼토리를 활용하는 링구아프랑카로서의 한국어, 효과적인 의미 협상을 위해 동원되는 각종 상호작용 전략, 기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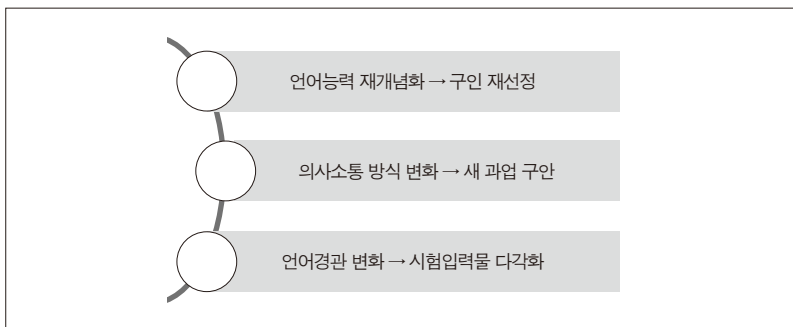
2) ‘다중언어주의’와 ‘다언어주의’, ‘상호문화주의’와 ‘다중언어주의’ 등의 개념과 영어 용어가 혼재되어 있다고 지적하신 심사자가 있었다. 현재까지도 학계에 이러한 혼란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본고의 용어 사용은 국내 최초로 관련 논의를 개진하고 번역·소개한 독일어교육학회 소속 연구자들의 용어 사용과 개념에 근거한 것임을 밝혀둔다. 꼼꼼하게 줄고를 읽어주신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이미지들이 나타나고 있는 듯하다. 현재 한국의 “다중언어 화자들은 보편화된 언어적 지식에 의존하기 보다는 연속적으로 언어 간 경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기호적, 생태적 자원을 활용하는 트랜스링구얼 실행을 보여주고 있다.(신동일·김가현·박수현·박세은, 2015: 143)”

다중언어 담론과 접목되는 언어 능력 평가의 1차적 논점은 ‘개인의 주체성’을 의사소통의 핵심에 둔다는 것이다.<sup>3)</sup> 다중언어주의에서는 화자가 다중적인 언어 사용 전반에 능숙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즉,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자신의 개성과 자기 효능감을 발휘하여 여러 유형의 언어들을 동원해서 의미를 나눌 수 있다면 충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유능한 화자란 다른 언어권의 사람과 소통할 때 다중적인 언어 사이를 오가며 적절하고 필요한 언어들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자로 정의될 수 있다.<sup>4)</sup>

본고에서는 서론의 도입문에서 언급한 대로, 다중언어주의의 관점과 말하기 평가를 접목하면 ‘언어 능력의 재개념화에 따른 구인 재선정’과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에 따른 시험 과업의 재설계’, ‘언어 경관의 변화에 따른 시험입력물의 다각화’라는 세 부면에서 논의를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이면 다음과 같다.

- 
- 3) 다중언어주의를 둘러싼 담론은 Pratt(1991)에서 ‘접촉 지대(contact zone)의 언어’를 다룬 연구를 시작으로, Garcia(2009)의 ‘역동적 이중언어주의(dynamic bilingualism)’, Pennycook(2010)의 ‘도시언어담론(metrolingualism)’, Canagarajah(2013)의 ‘횡단언어(translanguaging)’, Stibbe(2015)의 ‘생태언어학’ 등의 학술 논제로 발전되어 왔다. 국내에서 ‘다중언어주의’와 ‘언어 평가’를 연계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데 안미란(2010), 신동일(2012, 2016), 신동일 외(2015), 지현숙(2016), 안젤라 리-스미스(2016), 오승영(2019) 등이 있고 한국의 ‘횡단언어’를 조명한 최근의 연구로는 지현숙(2019)가 있다.
  - 4) 유럽평의회는 다중언어주의는 아무런 공통성이 없는 화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완화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Council of Europe, 2006: 171)



〈그림 1〉 다중언어주의를 기반으로 한 말하기 평가의 논점

앞서, 다중언어주의의 견지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구성하는 것은 다원적인 언어 레퍼토리아 상정한 바 있다. ‘레퍼토리(repertoires)’를 언어 능력에 처음 도입한 것은 Gumperz(1964)인데, 레퍼토리란 ‘어느 화자가 특정한 상황 맥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적 가능성의 총합’으로 정의된다.(안미란, 2010: 165) 이를 말하기 평가와 연관시키면, 어떤 수험자가 사용한 어휘, 구어 문법항목, 담화결속 장치, 말순서를 바꾸기 위해 동원한 수단 모두가 레퍼토리를 이룬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레퍼토리의 총합이 해당 수험자의 말하기 수준을 나타내는 준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 화자의 레퍼토리는 하나의 언어 지식으로만 제한될 수가 없는데, “다중문화적 능력과 다중언어적 능력은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을 단순히 가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조합과 변화 방식을 허용하기 때문이다.(안미란, 2010: 159)”

이러한 생각에 동의한다면 ‘여러 언어를 조합하고 변화시킬 줄 아는 능력’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생긴다. 이러한 능력은 ‘상호작용 전략’으로 어느 정도 설명될 수 있을 법하다. 상호작용 전략은 언어 사용자가 모국어나 지배언어의 규범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모든 기호와 여러 언어, 다양한 감각 등을 적극적으로 변용시키는 의사소통 기술이다.(지현숙·황철운, 2018: 382) 따라서 수험자가 적극적으로 말하기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는 새로운 언어 규범 만들기(make it normal), 언어 이동(language



mixing), 언어 바꾸기(code-switching), 재맥락화(recontextualisation)<sup>5)</sup> 등과 같은 상호작용 전략은 말하기 평가의 구인으로 수용할 만하다.

다중언어주의의 관점에서 재고할 만한 또 다른 말하기 능력으로 ‘다중 문해력’이 있다. 다중 문해력은 ‘다중 문식성(multiliteracies)’으로도 불리는데, 한 사회문화 구성원들이 문자 혹은 음성언어를 매개로 한 언어 의사소통 능력에서 나아가, 그 사회의 문화, 정치, 역사 속에서 얻어진 다양한 방면에서의 경험과 지식 등을 특정 맥락과 목적에 가장 적합하게 적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소통하는 일종의 사회적 행위로 정의된다.(안젤라, 2016: 149) 다양한 접촉의 언어가 유동성을 띤 채 증가하고 있고, 의사소통하려는 내용이나 나누려는 의미들이 복잡다기하고 고맥락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 시대에 수험자가 얼마나 폭넓은 다중 문해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노동 인력이 국제화되고 유동적인 산업 분야에 진출하려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기에 다중 문해력은 중요한 말하기 능력의 일부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중언어주의의 견지에서 재고할 만한 평가의 구인은 ‘언어 레퍼토리, 상호작용 전략, 다중 문해력’ 등이다.

다음으로 다중언어시대에 발견되는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가 말하기 시험의 과업 설계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할 것인가를 살피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구인과 과업은 서로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진다.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와 필연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이다. 이는 언어 시험에 ‘맥락 타당도’의 개념을 창안한 Weir(2005)가 타당도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과업’이라 강조한 논의에서도 확인된다.

널리 알려진 고비중 영어 말하기 시험의 과업들을 살펴보면, ‘개인의 신상과 경험에 관한 간단한 질문에 답하기, 텍스트 보고 소리 내어 따라 읽기,

---

5) Wikipedia(2019)에서는 ‘재맥락화’란 원래의 텍스트에서 다른 텍스트나 신호, 의미를 추출하거나 다른 맥락에서 다시 사용하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텍스트, 신호, 내용들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맥락에 의존하므로 재맥락화는 의미의 변화나 재개념화를 뜻한다고 볼 수도 있다.

텍스트를 보거나 듣고 질문에 답하기' 등이 공통적이다. 그러나 시험의 목적에 따라 강의·안내 등에 관한 정보 전달하기(PTE), 간단한 일상대화 완성하기, 의견 말하기, 설득하기, 추천하기(TSC), 대화나 강의를 듣고 요약하거나 해결책 제안하기(TOEFL) 등의 과업은 차별화되어 포함되어 있다. 상용화된 영어 시험과 다르게 미국 시민권 신청자의 인터뷰 시험은 평가자에 따라 과업이나 평가 방법에 편차가 커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예컨대, '최초의 미국 대통령은 누구입니까?'의 영어문장을 읽고 답을 말해야 하는 식이 있는가 하면 영어 문장 하나(예; Today is a beautiful day.)를 쓰고 나오는 것으로 진행하기도 한다.(McNamara & Roever, 2011/2013: 222) 이러한 방식의 말하기 시험은 후기 세계화시대의 달라진 의사소통 경관을 반영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다만, Henning, Schedl, & Suomi(1995)가 수행한 TSE 개정 연구에서 기존의 일곱 가지 과업 중 낭독과 문장 완성, 그림 보고 말하기를 제거함으로써 내용타당도와 실제성을 높인 사례는 특기할 만하다. 특히, '낭독'과 '문장 완성형'은 현재 한국어 평가에서 대중적으로 쓰이는 말하기 과업이므로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말하기 시험 구인과 과업에 관한 재고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는데 언어 경관의 다변화에 따라 시험입력물도 다양해져야 함은 물론이다. 말하기 시험의 입력물은 음성이나 문자로 된 언어 자료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그래픽, 간판, 안내물, 광고 포스터, SNS 자료 등 모든 매체 속 기호들이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말하기 평가에 주어지는 시험입력물과 수험자 간 상호작용, 수험자가 주어진 문항이나 과제에 반응하는 방식, 수험자의 언어적·비언어적 반응을 채점하는 방법 등은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지현숙, 2017: 55) 수험자가 시험입력물을 통해 현재, 여기에서 듣고, 보고, 느끼고 있는 익숙한 횡단언어 자료들을 접하게 될 때 보다 적극적으로 시험 수행에 임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의 언어 능력을 최대한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 2. 다중언어시대 한국어 말하기 평가의 현황

지금까지 다중언어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한국어 평가에 있어서도 변화된 시각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이에 더하여, 한국어를 L1으로 습득하지 않은 언어 사용자를 ‘비원어민 화자(non-native speaker)’나 ‘정확성이 떨어지는 중간언어 구사자’, ‘이방인’ 등으로 여겨온 인식들이 변화되어야 함을 피력하였다. 다중언어주의의 견지에서는 독특한 언어 양식을 창조해가는 언어 사용자이거나 상호작용 전략의 구사에 능하고 다방면의 문해력을 가진 학습자를 유능한 화자로 인식하기에 말하기 시험에서도 발음이나 문법의 정확성보다는 다양한 언어 레퍼토리를, 미시적이고 개별적인 한국어의 규범보다는 상호작용 전략의 사용, 다양한 상황에서의 언어 적용성과 상호 협력적 태도 등을 고려해야 함을 말하였다. 이러한 관점이 현재의 한국어교육의 관행 하에서는 성급한 논제가 될 수 있겠으나 전지구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다중언어주의, 횡단적 언어 수행, 생태언어학 등이 다루는 문제들을 한국어 말하기 평가에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이러한 논점 하에 현재까지 한국어 말하기 시험에 관한 논의는 어떻게 이어져 왔고 한국어 교육기관은 어떻게 말하기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가를 문헌연구와 조사연구를 통해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 1) 교실 말하기 평가에 관한 논의와 현황

한국어 평가론의 연구사를 검토하면 적지 않은 용어의 혼란이나 의미 오용의 사례가 발견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넘어갈 필요가 크다. 가장 두드러지는 문제점은 구인과 관련되는 각종 용어와 개념의 오용이다. 용어로 인한 혼란은 구인에 대한 논의에서도 나타나는데, 구인은 채점이나 평가 등급 기술과 관련된 영역으로서 다루어지고 있다.(민병곤·이성준, 2016: 90)

교실 기반 한국어 말하기 시험의 설계를 다룬 연구는 지현숙(2006)에서 시작되었는데 한국어 학습자의 말하기 능력을 ‘구어 문법 능력’으로 설정

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구인으로 ‘발음, 어휘, 문장구조구칙, 내용 조직, 상호작용태도, 담화운용, 전략’을 제안하였다. 박광진(2010)에서는 ‘내용 구성, 과제 수행력, 어휘, 문법, 발음과 억양, 상호작용’이 구인으로 제시되었고 강현주(2013)에서는 ‘상호작용 능력’에 집중하여 ‘주제 전개, 순서 교대, 반응 발화, 태도 및 몸짓언어’를 구인으로 제시하였다. 일본 지역 학습자를 대상으로 수행평가를 연구한 나카가와 마사오미(2014)에서는 한국어 말하기 수행평가를 위해 언어 능력과 문화 능력에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새로운 구인을 추가하였으며 학습자가 자신을 둘러싼 사회와 관계가 있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평가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평가 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실 말하기 평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대학 소재 한국어 교육기관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말하기 시험의 구인과 과업, 시험입력물, 시행 횟수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는 2019년 2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의 기간 동안 면담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조사 대상 기관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및 세종, 전주, 대구, 부산에 소재한 20개 교육기관이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대부분의 교육기관이 한 학기(10주)에 2회의 말하기 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학기 당 한 번 평가하는 기관도 있었으며 쓰기, 듣기, 읽기 시험만 있고 말하기 시험은 시행하지 않는 기관도 있었다. 둘째, 말하기 시험의 구인으로 ‘정확성, 유창성, 발음’은 거의 모든 교육기관이 공통적으로 채택하고 있고 ‘태도, 다양성, 내용, 상호작용’ 등은 교육기관마다 다르게 채택하여 평가하고 있다. 셋째, 말하기 과업으로는 초급의 경우 ‘낭독하기, 특정 문법 사용해서 문장 만들어 말하기, 역할극, 인터뷰’가, 중고급은 ‘특정 주제에 관해 말하기, 자료 보고 묘사하기, 토론, 발표’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주제를 주고 학습자가 작문을 한 다음 교사로부터 교정을 받은 후 쓴 내용을 암기해 말하는 방식으로 말하기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도 한 군데 있었다는 것이다. “말하기 평가는 지식 평가이든지 아니면 대부분 발표 수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지식 평가는 말하기 능력을 암기 능력으로 만들고 이런 암기가 실질적인 말

하기 능력 자체와 크게 관련되지 않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임철성, 2011: 276)” 교실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시험입력물은 주제나 역할, 상황 등이 제시된 카드와 사진 및 지도, 파워포인트 등이었다.

## 2) 말하기 표준화 평가에 관한 논의와 현황

표준화 평가 즉, 고비중 한국어 말하기 평가에서 ‘구인’에 관한 논의는 대개 TOPIK의 말하기 영역 추가에 관한 연구나 목적별 말하기 시험 개발 연구 등 국가 주도의 연구 사업들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김정숙·이동은·지현숙·김유정·진대연(2006)의 한국어 말하기 능력 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 및 평가 모형 개발 연구에서는 ‘과제 수행, 주제, 내용 구성, 어휘·문법, 발음, 유창성, 사회언어적 능력’이 말하기 시험의 평가기준으로 제안되었다. 한상미(2009)에서는 ‘언어적 능력(음운, 어휘·문법), 화용적 능력(담화, 과제·기능), 사회언어적 능력’이, 김상경(2015)에서는 유학생 및 유학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고비중 시험의 구인으로 ‘문법적 능력, 담화적 능력, 전략적 능력, 사회언어학적 능력, 과제 수행 능력’이 제안되었다. 민병곤·조수진·홍은실·박현정·강석한·이성준 외(2017)의 학문 목적 학습자의 말하기 시험 개발 연구에서는 한국어교육 전문가 사이에 구인에 대한 의미 차이가 크다는 지적과 함께 ‘어휘와 문법, 발음과 유창성, 내용, 조직’의 네 가지 구인을 제안하였다.<sup>6)</sup> TOPIK 말하기 시험을 설계한 원미진·황지유(2018)

- 6) 한국어교육 연구자 사이에 ‘구인의 개념 편차’가 크다는 민병곤 외(2016)의 지적은 타당하다. 이는 다음의 사례를 비교해 보아도 쉽게 확인 된다: “○과제 수행 능력: 요구된 내용과 기능을 잘 수행하는가? ○내용 구성 능력: 내용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구성하는가? ○담화 능력: 조리있고 일관성 있게 이야기를 구성하는가? 내용 제시 및 전개에 결속 장치나 전형적인 표지들을 잘 활용하는가? ○언어 능력: 어휘, 문법을 다양하고 적절하고 정확하게 사용하는가? ○발음 능력: 발음, 억양, 말의 속도가 적절하고 자연스러운가? ○구어 전달 능력: 발화 목적에 맞게 강조, 반복, 도치, 발화 속도 조절과 같은 전략을 구사하는가? ○사회언어적 능력: 발화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언어 격식을 사용하는가? ○상호작용 능력: 청자 문화에 대한 이해 등을 바탕으로 청자와의 공감, 청자의 흥미

에서는 ‘발음, 어휘, 문법, 정확성, 유창성, 내용’을 구인으로 제안하면서 말하기 시험의 문항 유형을 정할 때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문항 난이도, 유연한 문항 형식, 말하기 의사소통 능력, 활용처를 고려한 다양한 상황 유형, IBT 시스템에서 실현 가능한 문항, 문화 보편적 주제. (원미진 외, 2018: 18-23) 한편, 유종혁(2019)에서는 TOPIK 말하기 평가의 구인으로서 ‘음절 발화 속도’의 가치를 논하고 말하기 자동 평가의 가능성을 제고하였다.

한국어 표준화 평가의 말하기 ‘과업’에 관한 연구는 한국어능력시험의 CBT/IBT 기반 말하기 평가를 위한 문항 유형을 연구한 김유미·김현정·박동호·신동일·이영식·조수진·지현숙(2012)에서 본격화 되었다. 여기에서는 초급에서 고급 수준까지 급별 말하기 과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표 2〉 급별 말하기 문항 유형 (김유미 외, 2012)

초급	따라 말하기
	단순 질문에 답하기
중급	경험이나 계획 말하기
	그림 묘사하기
고급	도표/그래프 설명하기
	의견 말하기
	설득/대안 제시하기

학문 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말하기 시험의 과업으로 김상경(2015)에서는 ‘낭독하기, 강의 듣고 말하기, 토론에서 의견 말하기, 자료 보고 발표

---

유발이 가능하도록 설득력 있게 말하는가?”(김정숙 2014: 11) VS ”○표현: 발음의 정확성, 어휘의 적합성, 풍부성, 문법의 적절성, 복잡성 ○조직: 조직의 짜임새, 적절성, 문장 간 연결의 자연스러움 ○내용: 내용의 타당성, 적절성, 논리성, 풍부성, 구체성, 전문성 ○과제 수행: 시간 활용, 발화의 시작과 종료의 자연스러움, 완성도 ○유창성: 발화의 흐름, 휴지, 반복, 억양, 속도, 머뭇거림, 강세와 자연스러움”(홍은실, 2018: 31)

하기'가 제안되었다. “한국 대학(원)에 유학하려는 외국인 학생의 대학생활에 필요한 말하기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KoSTAP에서는 ‘경험 이야기하기, 비교하여 설명하기, 자료 보고 내용 분석하여 설명하기, 글을 읽고 문제 해결방안 설명하기, 대화를 듣고 주장과 근거 제시하기, 강의 듣고 요약하여 설명하기’ 등의 말하기 과업이 마련되었다. (민병곤·안현기·박현정·강석한·조수진·홍은실 외, 2017: 3)

한편으로 국내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에 관해서는 시험 개발에 참여한 연구진의 연구물들을 제외하면, 대체로 타당도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보인다.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KINAT)의 사회정치적 역할을 연구한 박성원·신동일(2015)에서는 귀화 시험은 한국 공동체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언어적·사회문화적 지식을 평가하기보다는 사회 통합과 안정을 위한 이민자를 선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또한 이미향·서혁·김호정(2018)의 이민자 대상 구술평가의 타당성 제고를 위한 논의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구술시험이 단계별로 시험 시간, 문항 수, 배점 모두가 차별화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채점 기준이 이민자의 언어생활을 확인하는데 부적절함을 비판하였다.(이미향 외, 2018: 66-70)

### III. 다중언어주의와 한국어 말하기 평가의 접목

시험은 늘 사회의 지배적인 신념체계, 사회문화, 관습, 힘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다. 본고는 한국어 말하기 평가가 다중언어시대의 이데올로기, 의사소통 방식, 언어 경관의 변화를 반영하고 다양한 언어 사용자의 말하기 능력을 타당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다음이 고려되어야 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 1. 시험 구인의 재고

앞서 다중언어시대의 유능한 화자는 의사소통에 대한 민감성이 높고 창의적이며 준언어적 수단에 대한 인지력이 뛰어난 능력을 갖춘 자로 설명할 수 있다 하였다. 시험의 구인은 사회적 가치 위에서 벌어지는 일종의 싸움판이다.(McNamara & Roever, 2011/2013: 282) 아직은 한국어 평가의 연구가 다중언어시대의 사회적 가치에 관하여 이렇다 할 쟁점화나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앞서 본고의 논점을 전제로 하여 다중언어시대의 한국어 말하기 평가는 다음과 같은 시험 구인이 고려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첫째, ‘다중적 문해력’을 한국어 말하기 시험의 구인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다중적 문해력은 한국어 말하기 수험자가 언어를 매개로 한 의사소통을 넘어서서, 한국을 둘러싼 사회문화, 정치, 역사적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적절하게 적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sup>7)</sup> 이 구인은 말하기는 동적이고 유동적이라는 인식을 반영한 개념이며,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사소통의 실제성까지 담보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진다. 다중적 문해력에는 말하기 수험자가 목표언어이자 지배언어인 한국어의 규범과 가치를 따르고 존중함과 동시에 자신의 모국어와 문화에 대한 지식과 자부심, 가치 존중까지도 함께 포함된다. 언어 사용자가 가진 다중적 문해력은 한국어 말하기를 풍부하게 할뿐만 아니라 건강한 세계시민의 표징으로 작동하는 기능을 한다.

두 번째는 ‘상호작용 전략’이 중요한 구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상호작

---

7) 다중언어시대에 한국어 학습자가 가져야 할 능력을 ‘한국어 다중 문식성’으로 개념화하고 ‘The 5Cs’에 기반을 두어 교실 평가에 적용한 사례를 보고한 안젤라(2016)의 연구는 귀하다. 여기에서는 공익광고를 통한 5Cs 수업을 시행하고 학습자 자가 평가를 실시한 경험을 기술하였다. 평가지의 ‘의사소통(한국어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었는가?), 문화(한국 문화의 지식과 이해를 얻는데 도움이 되었는가? 연계, 비교, 사회공동체’ 등의 교수목표 항목들을 재구성하여 교실 단위 말하기 시험의 구인으로 적용 가능할 수 있을 듯하다.



용 전략 가운데 특별히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대화의 구조를 다시 배치시켜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이는 ‘재맥락화 전략’, 대화상대방이 구사 가능한 언어를 고려하여 여러 언어를 오가며 사용하여 의미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는 ‘코드 스위칭’, 화자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전달하려는 의미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기호들을 활용하는 전략 등도 말하기 능력의 구인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

세 번째로 제안할 구인은 ‘레퍼토리의 크기’이다. 레퍼토리는 수험자가 특정한 말하기 문항이 요구하는 상황과 맥락을 고려한 언어 자원의 총화이다. 한국어 말하기 시험에 응하는 수험자가 지닌 언어 자원이 얼마나 풍부하고 많은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담화표지, 준언어, 각종 기호의 사용 능력 등을 눈여겨 살펴보아야 하겠다. 레퍼토리의 크기를 평가할 때에는 지배언어이자 목표어로서의 한국어 자원을 주된 대상으로 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소수언어에 대한 지식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다중언어주의적 관점이 반영되었다 할 만하다.

네 번째는 ‘창발성’이 구인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겠다. 창발성(emergence)은 말하기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사고의 자유로움을 반영한 것이어야 하며 언어 사용자는 독자적이고 주체적으로 한국어 말하기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서 나온 개념이다. 창발성은 말하기란 예측이 불가능하며 일정한 습득 순서를 지키며 발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구체화한 구인이다. 지금까지 배우거나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 사용하는 경험은 역동적이고 즐거운 의사소통에 기여한다. 창발성은 언어 사용자의 자율성과 개성, 활동성을 드러내는 다중언어주의적 속성을 지니므로 말하기 평가의 구인으로 재고할 만하다.

## 2. 말하기 과업의 다변화

말하기 과업이 다양해져야 함을 설명하기에 앞서 한국어 말하기 과업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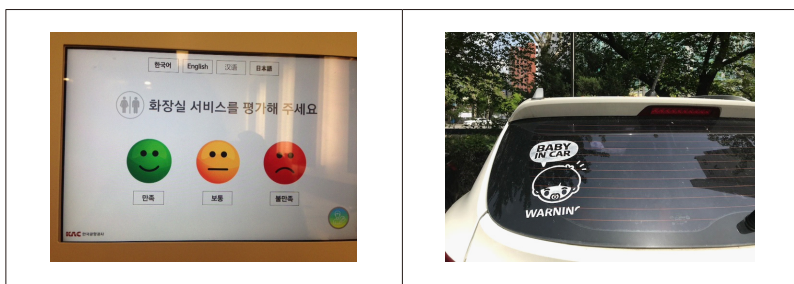
개발할 때 하나의 문항 속에 복수의 구인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자 한다. 특히 다중언어주의의 관점에서 말하기 능력은 단 하나의 실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구성요인이 게재되어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한국어 말하기 시험 문항들은 뚜렷한 ‘정답’이 있는 발화를 유도하기 위한 묻고 답하기, 학습한 문법 항목을 사용한 문장 만들어 말하기, 낭독하기 등의 과업을 사용해 왔다. 복수의 말하기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험의 과업은 다양한 맥락과 가치 안에서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시험 수행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재고되어야 하겠다.

다중언어사회에서 ‘이야기 구술(storytelling)’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어떤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로 다시 말하여 전하는 과업은 우리의 삶에서 자주 발견되는 의사소통 방식이다. 한국어 학습자가 가진 다중적 문해력, 다양한 언어 레퍼토리, 수사력 내용 조직 능력 등이 평가될 수 있도록 이야기 구술 과업이 더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하겠다. 특히 웹툰을 보며 스토리텔링하거나 연속되는 몸짓언어를 통해 이야기를 만들어 말하는 과업 등이 새롭게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중상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발과 배치, 진단과 성취형 시험을 만들 때 묘사와 서술을 요구하는 스토리텔링 문항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학습에 건강한 환류효과를 의도할 필요가 있다.(신동일, 2011: 18)

다중적인 매체 문해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말하기 시험 과업에 ‘공익 광고’ 1~2편을 보여주고 의미를 해석하거나 비교해서 말하는 과업이나 ‘SNS(인스타그램)’에 올라온 ‘혼밥’ 사진 혹은 교사가 직접 찍은 ‘초보운전’을 나타내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이에 대해 말하기 등이 새롭게 시도될 만하다. 이에 더하여 여행자, 상인, 이웃 주민, 이문화권 유학생, 다문화 가정 어린이 등 다양한 배경의 언어사용자가 포함되고 의미 협상에 협력하기 위한 정도, 대화참여자의 수행변인 등을 고려하여 말하기 시험의 과업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그밖에 다양한 담화 유형을 포함한 과업을 만들기 위하여 대화 외에도 단체 채팅이나 SNS 상의 의사소통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3. 시험입력물의 확장

말하기 시험 과업에 투입되는 청각 자료나 그림, 사진 등의 시험입력물은 일차적으로 수험자가 이해하기 쉬워야 하고 말하기 수행이 최대한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말하기 시험을 준비하는 한국어 교사가 아래와 같이 최근의 언어 경관을 찍은 사진들을 시험입력물로 사용한다면 수험자의 다중 문해력이나 언어 레퍼토리, 창발성 등이 잘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말하기 평가를 위한 시험입력물의 예

다중언어시대의 언어 경관을 반영하여 기존의 한국어 말하기 시험이 주로 사용해 온 그림 및 사진, 신문기사의 도표 등의 시험입력물들이 다변화되어 광고 전단지, 기호, 표지판, 블로그, SNS메시지 등으로 확장될 필요가 크다. 또한 지하철이나 공항 화장실 등의 다언어 서비스나 관공서의 다국어 지원 서비스와 같이 현실 세계를 온전하게 반영한 자료들이 말하기 시험의 프롬프트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해당 말하기 시험의 주요 응시자가 누구인가에 유념하여 수험자의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경험이 차별적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는 시험입력물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 IV. 맺음말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한국어 말하기 평가가 다중언어시대에 부합하는 언어관이나 변화된 언어 경관을 오롯이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이에 다중언어주의와 말하기 평가를 연계하기 위하여 Pratt(1991)의 접촉 지대, Pennycook(2010)의 도시언어담론, McNamara & Roever(2011/2013)의 비판적 언어평가, Canagarajah(2013)의 횡단언어, Stibbe(2015)의 생태언어학 등의 주요 논의들을 검토하였다. 또한 한국어 말하기 평가의 현황을 교실 평가와 표준화 시험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조사하여 기술하였다. 이를 토대로 다중언어시대의 말하기 시험은 다중적 문해력, 상호작용전략, 레퍼토리의 크기, 창발성 등이 구인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제언하였으며 말하기 시험의 과업은 첫째, 복수의 말하기 수행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맥락과 가치가 내재되어야 한다. 둘째, 다중적 문해력, 언어 레퍼토리의 총량, 수사력, 내용 조직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과업이 적극 도입되어야 한다. 셋째, 다양한 언어사용자가 포함되고 대화 참여자의 수행변인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피력하였다.

한국어 교실에서 말하기를 가르치든, 말하기 시험 문항을 개발하든, 고비중 말하기 평가 연구 용역에 참여하든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한국어 말하기 교육을 둘러싼 평가 활동에 개입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중언어시대의 사회적 단면에 대한 철학적 고찰과 타당한 말하기 평가의 설계, 시험 결과의 사용에 관한 정치역사적 가치 등에 대하여 충분히 고민하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이제 더는 심리측정학에 기반을 둔 신뢰도 논의나 지표 중심적인 타당도 검증으로 해당 시험이 온전하다고 주장하기 힘든 때가 왔다. 한국어 능력 평가 연구자들은 시험의 구인과 과업을 이데올로기와 결부시키고 역사와 문화를 연계하고 언어 경관을 담아내기 위해 활발한 논의를 경주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의 한국어 능력 평가를 시행하는 현장에서 발견되는

“전근대적인, 너무나 전근대적인”<sup>8)</sup> 구태(舊態)를 벗어나기 위한 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새로운 학술적 논점을 이어가는 것이 미룰 수 없는 책임이 되고 있다. 계속적으로 다중언어주의와 연계한 심도 있는 한국어 평가 논의가 이어지기를 고대한다.

\* 본 논문은 2019.4.29. 투고되었으며, 2019.5.1. 심사가 시작되어 2019.6.6. 심사가 종료되었음.

8) 이는 연구자의 발표를 듣고 청중석에서 주신 한 중견학자의 논평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기에 겹따옴표로 표시한다.

## 참고문헌

- 강현주(2013), 「한국어 말하기 평가의 구인으로서 상호작용능력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상경(2015),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말하기 능력 평가 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유미·김현정·박동호·신동일·이영식·조수진·지현숙(2012), 『한국어능력시험의 CBT/IBT 기반 말하기 평가를 위한 문항 유형 개발』, 성남: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 김정숙(2014), 「한국어 말하기 능력 구인 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어교육』 25(4), 1-21.
- 김정숙·이동은·지현숙·김유정·진대연(2006), 『한국어 말하기 능력 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 및 평가 모형 개발』, 서울: 국립국어원 한국어세계화재단.
- 나카가와 마사오미(2014), 「한국어 말하기 수행 평가 연구: 일본 지역 학습자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민병곤·안현기·박현정·강석한·조수진·홍은실·이성준·오예림·이승원(2017), 『KoSTAP 2 차 평가위원 워크숍 자료집』, 서울: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 민병곤·조수진·홍은실·박현정·강석한·이성준·오예림·이승원·안현기(2017), 「학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 평가 도구 개발 연구」, 『국어교육』 157, 309-340.
- 민병곤·이성준(2016), 「학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 평가 도구 개발의 쟁점과 과제」, 『국어교육연구』 38, 67-110.
- 박광진(2010),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 대상 교실 말하기 평가 연구」,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성원·신동일(2015), 「언어시험의 사회정치적 역할 연구: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KINAT)에 관한 대중매체 자료를 기반으로」, 『다문화교육연구』 8(1), 49-75.
- 신동일(2011), 「푸코 이론을 기반으로 한 영어시험의 권력담론 탐색」, 『문화와사회』 21, 239-288.
- 신동일(2012), 「비판이론 관점에서 고부담 영어시험의 속성 재탐색」, 『人文研究』 64, 25-60.
- 신동일(2016), 「다중언어 사용자와 단일언어주의 기반의 평가활동에 관한 비판적 견해」,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4), 87-118.
- 신동일·김가현·박수현·박세은(2015), 「국내 단일언어주의 정책 변화와 필요성 탐색: 링구아 프랑카, 트랜스링구얼 논점을 기반으로」, 『다문화와 평화』 9(3), 143-162.
- 안미란(2010), 「문화 정책의 맥락에서 파악한 유럽평의회와 다언어주의와 다중언어주의 개념」,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26, 153-177.
- 안젤라 리-스미스(2016), 「외국어교육표준(5Cs)에 기반을 둔 한국어 다중 문식성 교수학습 자료 설계 방안」, 『한국어교육』 27(2), 143-192.
- 오승영(2019), 「이주민 대상 한국어시험의 맥락 타당도 연구」, 배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원미진·황지유(2018), 「언어능력 평가로서의 말하기 평가 내용 연구: 한국어 말하기 평가 개발을 위한 국내의 말하기 평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어문론총』 75, 45-78.
- 유럽평의회(2006), 『언어 교수·학습·평가를 위한 유럽공동참조기준』, 서울: 한국문화사.

- 유종혁(2019), 「TOPIK 말하기 평가 구인으로서의 음절 발화 속도에 대한 연구: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노우에 후미오(2015), 『경제언어학-언어 방언 경어』, 김덕호 외(역), 서울: 역락.
- 이신동·김진호·이상희·이경숙·차재경·이영(2017), 『다문화와 교사교육』, 서울: 학지사.
- 임철성(2011), 「화법 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국어문교육』 10, 261-288.
- 지현숙(2006), 「한국어 구어 문법 능력의 과제 기반 평가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지현숙(2016), 「한국어 능력 시험에 관한 신문과 수험자의 답론 분석」, 『국어교육학연구』 38, 193-221.
- 지현숙(2017), 『한국어 평가론』, 서울: 랭기지플러스.
- 지현숙·황철운(2018), 「도시언어 상호작용 전략에 관한 일고찰: 대학 공간 내 대화참여자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180(4), 375-398.
- 지현숙(2019), 「다중언어 시대 한국의 횡단언어 경관에 관한 고찰」, 『국어교육』 165, 419-441.
- 한상미(2009), 「학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 평가 연구: 대학 입학 전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0(1), 207-238.
- 홍은실(2018),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에서의 말하기 평가」, 국제한국어교육학회(INK) 제26차 전국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6-45.
- 이미향·서혁·김호정(2018), 「이민자 대상 구술평가의 타당성 제고를 위한 시론」, 국제한국어교육학회(INK) 제26차 전국학술대회 발표자료집, 58-71.
- Canagarajah, A. S. (2013). *Translingual practice: Global english and cosmopolitan relations*, New York, NY: Routledge.
- Garcia, O. (2009), Education, multilingualism and translanguaging in the 21st Century, In A. K. Mohanty, M. Panda, R. Phillipson, & T. Skutnabb-Kangas(Eds.), *Multilingual Education for Social Justice*, Bristol: Multilingual Matters.
- Gumperz, J. J. (1964), "Linguistic and social interaction in two communities", *American Anthropologist* 66(6), 137-153.
- Henning, G., Schedl, M., & Suomi, B. K. (1995), *Analysis of proposed revisions of the Test of Spoken English(RR-95-1)*, Princeton, NJ: Educational Testing Service.
- McNamara, T. & Roever, C. (2013), 『언어평가: 사회적 단면』, 신동일 외(역), 서울: 한국문화사(원서출판 2011).
- Pennycook, A. (2010). *Language as a local practice*, Abingdon: Routledge.
- Pratt, M. L. (1991), Arts of the contact zone. *Profession* 91, 33-40.
- Stibbe, A. (2018). 『생태언어학: 언어, 생태학, 삶으로서의 이야기』, 김규훈 외(역), 서울: 역락(원서출판 2015).
- Weir, C. J. (2005), *Language testing and validation: An evidence-based approach*, London: Palgrave Macmillan.
- Wikipedia(2019), recontextualisation, 검색일자 2019. 3. 21., 사이트주소 <https://en.wikipedia.org/wiki/Recontextualisation>.

## 다중언어주의 기반 한국어 말하기 평가의 담론

지현숙

본고는 다중언어시대의 이데올로기, 변화된 의사소통 방식, 언어 경관 등을 반영하여 한국어 말하기 시험이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를 모색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다중언어주의의 개념을 고찰하고 언어 평가와의 관련성을 논의하였으며 한국어 말하기 평가의 연구사 검토와 현황을 조사하여 비판적 관점으로 기술하였다. 본고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어 학습자의 말하기 평가는 다중적 문해력, 상호작용 전략, 레퍼토리의 크기, 창발성이 구인으로 재고되어야 한다. 둘째, 시험 과업은 복수의 말하기 수행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맥락과 가치가 내재되어야 하고 스토리텔링이 적극 도입되어야 하며 대화 참여자의 수행 변인이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다중언어시대의 언어 경관을 반영하여 광고물, 기호, 표지판, SNS 콘텐츠 등이 시험입력물로 널리 사용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다중언어시대의 사회적 단면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기반으로 타당한 한국어 말하기 평가를 설계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향을 시론적으로 개진한 의의가 있다.

**핵심어** 다중언어주의, 한국어 말하기 평가, 시험 구인, 말하기 과업, 시험입력물



## ABSTRACT

# A Discourse on Korean Speaking Assessment based on Plurilingualism

Jee Hyunsuk

This thesis explores how to change the Korean speaking test to reflect the plurilingualism, the changed communication style, and the language landscape.

To this end, the concept of plurilingualism and the relevance of language assessment were discussed. In addition, the state of Korean Speaking Assessment was investigated and described. Based on these discussions, the followings are established: First, the Korean learners' speaking test should be reconsidered as multiple literacy, interaction strategy, size of repertoire, and emergence. Second, the task of speaking test should include various contexts and values to be able to carry out multiple spoken words. Storytelling task should be actively introduced and the performance variables of dialogue participants should be considered. Third, advertisements, symbols, signs, SNS contents should be used as test prompt reflecting the language landscape of the pluri-lingual era.

**KEYWORDS** Plurilingualism, Korean Speaking Assessment, Construct, Speaking Task, Prompt